

## 번역인식론적 접근: 프랑스 번역철학자 라드미랄을 중심으로\*

윤성우·이향  
(한국외대)

### 1. 서론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번역학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과연 어디까지가 번역학의 연구 영역에 속하며, 번역학은 어떠한 연구방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인식의 영역을 구축하고 넓혀나가는가?

번역학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졌을 법한 질문이다. 이런 질문들을 빈번히 던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번역학이라는 학문은 그 안에 지극히 혼질적이고 다양한 담론들을 아우르고 있다. 좁게는 특정 언어의 특정 단어를 다른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넓게는 번역과 권력, 문화 등의 연관성에 대해 천착하는 사회적, 문화적 성격의 연구에 이르기

---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까지, 번역학은 무한히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는 거대한 장으로 성장하였다.

번역학 내부의 복잡다단함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지평의 다양성과도 맞물린다. 개별 연구자가 어떤 계기로 번역학의 장(場)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주제도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번역의 경험을 토대로 번역이론에 이르게 된 연구자의 번역관은 분명 실용텍스트의 번역이나 동시통역의 경험을 통해 이론화 작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연구자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번역학의 본질과 지향에 대한 물음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에서는 서두에서 제기한 물음들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번역학이 학문적으로 성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전제한다. 번역학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메타담론(meta-discussion)’<sup>1)</sup>이야말로, 현재까지의 번역담론에 대한 거시적 반성과 향후 번역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타담론은 다양한 지평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지면만이 허락된 본고에서는 번역학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메타적 물음과 담론 중, 특히 인식론적 성격의 담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사실, 국내에서는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의 첫 단계는 아마도 그 의미를 간단히 정의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해외 번역이론가들 중,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담론에 관심을 가진 저자들의 핵심적 담론들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국내 번역담론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차적 작업으로 우선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정의해 보고, 최근 번역 인식론과 관련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이론적 입지를 굳혀 가고 있는 프랑스의 번역철학자 라드미랄(Ladmiral)의 번역인식론을 개괄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언급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1) 번역학에서의 메타담론에 대한 연구로는 이향(2011)을 참조한다.

## 2. 번역인식론<sup>2)</sup>이란 무엇인가?

번역인식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일단 철학에서 ‘인식론(epistemology)’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인식론은 서양 철학의 고유한 분야로, 이미 플라톤부터 참된 앎, 참된 지식(혹은 진리)를 ‘에피스테메’라 규정하였으며, 이후 참된 앎에 이르는 길이나 방법에 관한 담론 전체를 ‘인식론(epistem+logy)’이라 부르게 되었다. 물론 참된 앎의 대상은 시대마다 달라서, 고대철학에서는 대상세계(object world) 전반에 대한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적 진리로서의 참된 인식이 중요했던 반면, 근대 이후에는 대상세계보다는 인식의 근거나 기원이 되는 주체, 즉 인식 주체에 관한 논의가 인식론의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외부 세계가 인간의 오감(五感)에 제시하는 감각자료와 그에 대한 숙고 및 체계화를 강조하는 경험론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오성(悟性)의 선험적인 개념 능력을 참된 인식의 근거로 보는 합리론, 혹은 인식 주체와는 독립된 물리적 대상과 사실의 총체가 인식의 최종근거라고 보는 실증주의 등은 근대 인식론의 전형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인식론의 출발점은 분명 철학이었다. 그러나 철학이 아닌 다른 학문분야에서 그 학문에서의 인식의 획득 방법, 인식의 정당성과 타당성 등을 다룬다면, 우리는 이를 인식론적 성찰로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문은 늘 번역문보다 우월하다든지, 혹은 원문보다 나은 번역문은 없다는 등의 번역(학)적 주장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가능한 명제들이다. 다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를 고찰하고자 할 때, 그 주장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성찰의 가치가 있는 논증이 되기 시작한다. 한 마디로, 그 주장의 내용적 타당성을 그 주장의 획득 근거나 생성 근거에서 따져 묻는

2) 향후 우리는 ‘번역인식론’과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또는 성찰)’을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령 ‘종교철학’과 ‘종교에 대한 철학적 접근’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종교철학이 다양한 철학의 분과들(예를 들어, 정치철학, 과학철학)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문제들과 개념들을 가진 분야를 지칭한다면, 종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종교에 대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제제기와 논의 틀을 허용하되, 그 전개방식과 논거 및 결론이 철학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것이 바로 인식론적인 것이며, 이것은 그 분야에서 획득된 인식 전반의 성격을 비판적, 반성적인 방식으로 다루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자체에 대한 담론, 즉 메타담론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를 번역학에 적용해 볼 경우, 번역인식론은 번역, 혹은 번역학에 관련된 지식이나 인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서 지식의 성격이라 함은 번역(학)적 지식의 종류, 지식의 획득 방법이나 절차, 타당성, 정당성, 근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직역이나 의역이나의 논쟁은 일종의 번역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이다. 직역, 의역 논쟁의 핵심은 원문 텍스트의 어떤 요소와 성질을 번역해 내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언어는 의미(시니피에)와 형태(시니피앙)로 구성된다고 전제하면서, 의미는 정신적이기에 개별언어와 별개로 존재하고, 형태는 물리적이기에 개별언어와 분리 불가능하므로 다른 언어로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의미 중심의 전달, 다시 말해 의역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번역방식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이는 번역에서의 인식 또는 앎의 대상을 형태가 아닌 의미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번역인식론적 접근 또는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번역학이 경험과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홈즈(1988: 66)나 번역학이 처방(prescriptive)으로부터 기술(description)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한 뚜리(1995)는 번역이 아닌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번역에 관련된 지식이나 인식을 경험을 통해 얻는지, 통계 또는 실험을 통해 얻는 것인지, 직관 또는 반성을 얻는 것인지를 분류하고 그 장단점을 논하는 것 역시 번역학적 지식의 획득 방법이나 절차 등의 타당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번역인식론적 담론’으로 불릴만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국내에서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번역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론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3. 라드미랄은 어떤 번역인식론을 수행하는가?

사실 비(非)영어권의 번역학자들, 다시 말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권 등의 번역학자가 국내 번역학계에서 해당언어의 전공자들을 넘어서서 폭넓게

수용되려면, 자신의 이론을 영어로 저술하여 보급하거나, 혹은 그 주저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프랑스의 번역철학자 라드미랄은 아직은 국내에 잘 알려진 저자라 할 수 없다. 라드미랄의 주저 *Traduire: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번역하기: 번역을 위한 이론소(理論素)』)는 한국어로는 물론이고 아직 영어로도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의 수많은 논문들 역시 대부분 프랑스어로 쓰여 있기에 비 불어권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라드미랄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라드미랄이 번역학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인식론을 시도한 드문 저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번역학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한 저자 역시 소수이다. 그러나 라드미랄의 경우는, 그의 번역담론 자체가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작업<sup>3)</sup>은 최근 유럽과 캐나다의 번역학계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철학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번역이 가지는 해석학적, 철학적 의미를 고찰한 저자들은 드물지 않다. 프랑스의 해석학자 리코르(Ricoeur)<sup>4)</sup>나 데리다(Derrida), 보다 간접적 방식이기는 하나 미국의 논리철학자 콰인(Quine)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번역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이들의 연구는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 물음들에 천착하는 오늘날의 번역학계에서 폭넓게 수용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유독 라드미랄이 유럽과 캐나다 번역학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3) 2010년 5월 개최된 캐나다 번역학회(CATS)의 제23차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라드미랄의 번역 인식론을 주제로 초청이 기획된바 있으며, 2010년 6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소르본느 대학교와 프랑스번역학회(SEPTET)<sup>1)</sup>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대회는 ‘장르네 라드미랄: 끝없이 변화하는 위업(Jean-René L'admiral: oeuvre en mouvement)’이라는 주제 하에 라드미랄의 연구업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프랑스 번역학회가 파리10대학 번역연구소(CERT)<sup>1)</sup>와 공동주관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번역하기와 인식론적 전환(Traduire: le tournant épistémologique)’을 대회 주제로 선정하고 라드미랄의 번역 인식론적 성찰의 의미를 되새겼다.

4) 리코르의 번역에 대한 성찰은 『번역론』을 참조한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6, 철학과 현실사)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위 ‘사변적, 철학적’ 성격의 번역담론 계보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인의 원초적 번역 불확정성론(The thesis of indeterminacy of radical translation)에서 볼 수 있듯이, 영미 쪽이 주로 논리학이나 과학철학적 입장에서 번역을 바라본다면 유럽 쪽에서는 벤야민(Benjamin)의 순수언어(pure language)론이나 스타이너(Steiner)의 해석적 번역론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성향의 번역담론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라드미랄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러한 철학적 전통 안에 존재하면서, 또한 파리 10대학의 철학 교수로서 학문적 경력을 시작했으면서도, 오늘날의 번역학계가 요구하는 실무적 감각과, 번역현장에 대한 이해, 파리통번역고등교육원(ISIT)<sup>5)</sup> 교수로서의 번역교육 경험, 언어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동시에 갖춘 드문 저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드미랄의 번역학적 성찰이 가지는 독특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번역철학자 라드미랄의 번역학적 성찰을 특징짓는 첫 번째 요소는 철학, 언어학, 번역학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그의 방대한 연구 스펙트럼에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다학제적(혹은 초학제적) 성격의 성찰은 그의 주저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나, 번역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번역교육, 번역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변화 과정, 언어학과 번역 등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Ladmiral 1994). 이러한 폭넓은 관심은 과거 언어학과, 철학,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번역의 문제를 다루었던 프랑스의 구조주의 언어학자이자 일세대 번역학자 무냉(Mounin)<sup>6)</sup>에 비견된다. 실제로 프랑스의 번역학자 발리유(Balliu 2004: 52)는 라드미랄을 무냉의 후계자로 주저 없이 지목하기도 한다. 물론 라드미랄이 자신에게 대해 내려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라드미랄은 프랑스 번역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서의 무냉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무냉이 ‘번역 불가능성’이라

5) 파리카톨릭교육원 내부에 개설된 통번역고등교육원(ISIT: Institut Supérieur d'Interprétation et de Traduction). 라드미랄은 ISIT에서 번역학을 가르치고 있다.

6) 무냉의 주저로는 문학번역의 문제를 다룬 『아름다우나 부정한 여인들 *Les belles infidèles*』(1955), 언어학적 차원에서 번역에 대해 고찰한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1963, 이승권 옮김, 2002)과 『언어학과 번역 *Linguistique et traduction*』(1976), 뒤이어 『언어학과 철학 *Linguistique et philosophie*』(1975)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무냉의 번역론이 가지는 철학적 함의는 윤성우(2009)를 참조한다.

는 케케묵은 논쟁에 지나치게 집착하였다는 점, 그리고 언어학(만)이 번역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언어학의 위력을 지나치게 맹신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녕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Ladmiral 1995: 41-49). 그 자신의 표현대로 라드미랄이 무녕의 ‘언어학지상주의적’ 노선을 계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무녕의 뒤를 이어, 프랑스 번역담론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번역 담론에서 화두가 되는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어 이론과 실무와 관계(1995: 18-20) 번역 교육의 문제(1995: 23-82)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은 명백하다.

둘째, 일찍이 철학의 지평에서 번역을 논한 학자들은 무수히 많다.<sup>7)</sup> 그런데 이렇듯 번역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한 저자들의 경우, 대부분 번역문보다는 원전을 중시하는(source-oriented) 입장, 다시 말해 번역문의 가독성보다는 원전의 충실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소위 의역주의보다는 직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번역학사에서 중요한 저자로 언급되곤 하는 슐라이어마허나 벤야민 등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슐라이어마허가 번역가의 두 가지 선택을 ‘저자를 독자에게 데려가는 것’과 ‘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두 가지의 선택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슐라이어마허 스스로가 옹호했던 것은 두 가지 중 후자, 즉 원문에 충실한 직역주의적 번역이었음은 명백하다(Schleiermacher, Friedrich [1813]1999). 이는 벤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번역가의 과제」라는 논문에서 번역은 독자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는다(Benjamin [1921]1971).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번역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소위 ‘문자 중심의 번역(traduction-de-la-lettre)’을 제안한 프랑스의 번역학자 베르만(Berman) 역시 가독성이나 소통을 우선순위로 삼는 번역에 반대하였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9). 또한 베르만을 계승하여 영어권에서의 번역, 번역가의 지위 등의 문제를 천착한 베누티(Venuti) 역시, ‘자국화’ 방식의 번역이 아닌 ‘이국화’ 번역을 주장한 바 있다(Venuti 1995).

그런데 라드미랄의 경우는, 기존의 번역철학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스스로 의역주의의 진영에 속함을 당당하게 밝힌다.

7) 번역학과 서양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Pym(2002)을 참조한다.

Au niveau de la théorie traductologique, je range parmi les sourciers des penseurs comme Walter Benjamin, Henri Meschonnic, ou Antoine Berman [...]

Parmi les théoriciens de la traduction (ou «traductologique») qu'on peut dire ciblistes, je citerai Georges Mounin, Eugene A. Nida et Charles R. Taber, Efim Etkind.. - et c'est, on l'aura sans doute deviné, parmi ces derniers que je me rangerai moi-même.

번역학 이론 차원에서 나는 벤야민, 메쇼닉, 또는 베르만 같은 사상가들을 원문주의자(sourciers)라 분류한다. [...] 번역이론가들 (또는 번역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의역주의자(도착어주의자, ciblistes)라 부를 수 있는 저자들은 무냉, 나이다와 테이버, 에트킨트 등일 것이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나 자신은 후자들의 편에 속한다(Ladmiral 1986: 39).

라드미랄의 이러한 입장은 실무와 분리된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소신에서 비롯된다. 라드미랄은 ‘이론을 숭상하는 귀족’과 ‘번역 실무에만 목을 맨 프롤레타리아’간의 분업, 그리고 번역이론가와 번역 실무자간의 ‘긴장’을 꼬집으며, 번역 실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이론을 격렬히 비판한다(Ladmiral, 1994: 86-88). 이러한 라드미랄의 입장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가장 실무 중심적, 도착어 중심적 이론의 축으로 간주되는 파리 스쿨의 해석이론가들까지도 그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셋째, 라드미랄의 성찰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라드미랄이 오늘날의 번역담론에 가장 필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결여되어 있는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번역학 내부에서도 번역인식론적 담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번역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홈즈(1988)가 번역학을 ‘현상을 관찰, 기술하고 그로부터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경험과학’으로 규정했어야말로 번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굳이 ‘인식론적’ 성찰이라고 스스로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번역학이 ‘언어학(보다 구체적으로는 응용언어학)의 하위범주라고 표방하거나, 혹은 번역이론이 ‘실무의 설명’이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인식론적 성격의 담론에 속한다. 뚜리(Toury)가 번역학에서 ‘기술(description)’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 역시, 번역학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인 동시에, 번역학에서의 지식이나 앎이 어떤 방법으로 획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인식론적 담론이



라고 할 수 있다(Toury 1995).

그러나 이들은 번역에 대해 인식론적 성찰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 번역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론적 성찰이 체계적이고 충분한 방식으로 개진되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인식론이 철학과 연계된 학제적 성격의 주제라는 점, 그리고 최근의 번역학이 기존의 사변적, 철학적 접근을 경계하고 그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물음이나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바야흐로 번역학이 타 학문의 하위학문이 아닌 독립학문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오늘날, 라드미랄과 같이 번역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소수의 저자들의 작업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라드미랄의 번역 인식론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4. 라드미랄의 번역인식론과 그 쟁점

라드미랄은 번역학의 내부에서 개진되는 담론들을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Ladmiral 2003: 151).

1. 처방적, 규범적 번역학(traductologie prescriptive ou normative)
2. 기술(記述)적 번역학(traductologie descriptive)
3.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traductologie inductive ou scientifique)
4. 생산적 번역학(traductologie productive)

위에서 라드미랄이 제시한 네 가지 종류의 번역학은 그 자체만으로도 번역학의 주요 이론 공간들과 그러한 공간들의 통시적 발전과정을 암시한다.<sup>8)</sup> 위의

8) 라드미랄(2010a)에서는 자신이 제안한 네 가지 번역학이 연속적(successive)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différentes) 단계라고 설명하며 네 개의 번역학을 역사적 발전 단계로 인식하는 입장을 철회하는 듯이 보이나, 라드미랄(2010b)에서는 여전히 그제,

네 가지 ‘번역학’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들이 한결같이 개별 번역학 내에서의 지식이나 인식의 성격, 그 산출 방법 심지어 그 입증이나 검증의 방식 등을 모두 노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번역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론적’ 담론이다. 이제 개별 번역학들을 라드미랄이 어떻게 설명하며 어떤 번역이론가들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라드미랄의 번역학 분류가 노정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4.1. 처방적, 규범적 번역학

일반적으로 번역학에서 ‘처방적’ 번역학은 번역학이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의 번역담론들의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체로 개별 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번역의 방식을 ‘처방’하는 식의 담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방적 성격의 담론은 종종 학문적 객관성을 결여한 과거의 번역학으로 간주되곤 한다. 라드미랄의 관점 역시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라드미랄은 처방적 번역학을 대표하는 저자로 벤야민, 스타이너, 메쇼닉(Meschonic) 등을 꼽는다. 사실 벤야민이나 스타이너 등이 정작 라드미랄의 분류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라드미랄은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인문 과학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개진된, 언어와 번역에 대한 다분히 사변적이고 문학적이며, 철학적인 탐색 모두를 ‘처방적/규범적 번역학’으로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담론들을 어제의 번역학도 아닌 ‘그제(avant-hier)’의 번역학으로 규정하고 있다(Ladmiral 2003: 152).

아마도 번역에 대한 연구의 초기부터 있어왔던 이런 규범적 번역연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고한 번역연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규범적, 처방적 번역담론은 비록 주관적 진술의 형태일지언정 우리가 번역에 대해 가지는 초기의 인상과 직관적 견해들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번역론일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이고 신비적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당위적이거나 이상적 차원

---

어제, 오늘, 내일의 번역학의 기본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미세한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라드미랄의 인식론적 접근과 번역학의 유형화 시도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애초에 라드미랄이 제시했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의 번역의 모습을 간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드미랄이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는 벤야민이 특히 그렇다. 분명 벤야민(Benjamin [1923]1984)의 경우 언어와 번역에 대한 가장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성찰을 시도한 저자로 평가될 수도 있으며, 시대적으로도 현대 언어학의 이전의 철학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규범이나 처방 속에 담겨져 있을지도 모를 번역의 이상적(理想的) 지향성 자체가 무시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번역이 원본의 새로운 부활이어야 한다는 벤야민식의 당위적 주장은 번역(및 번역가)이 원본(및 원저자)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는 존재론적 위계를 뒤흔드는 파괴력 있는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이다.

#### 4.2. 기술(記述)번역학

번역학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번역학이라 함은 투리를 위시하여 텔아비브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된 소위 DTS(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진영을 일컫는다. 그러나 라드미랄에게 기술번역학은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다. 라드미랄은 기술번역학을 대표하는 연구가로 비네와 다블네(J.-P. Vinay & J. Darbelnet, 1968), 무냉(1963), 캣포드(Catford, 1965)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현대 언어학의 방법론적 세례를 받은 저자들로 언어와 번역에 대해 이전의 연구 과들과는 인식론적 단절을 시도한다고 여겨지는 저자들이다. 이들은 두 개 이상의 언어,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과물로서의 번역을 원전과 언어적 차원에서 대조하고 비교, 기술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으며, 기본적으로 번역 담론을 응용언어학의 한 범주로 인식하였다. 번역의 시작과 종료 전체를 아우르는 번역 과정 중에서 마지막 요소인, 이미 산출이 종료된 번역물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인지 언어학적 성과에 바탕을 둔 과학적 번역학에 비해 시간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점에서 라드미랄은 이상의 저자들의 논의를 ‘어제(hier)의 번역학’으로 규정하고 있다(Ladmiral 2003: 154).

그런데 이러한 기술번역학의 문제점은 ‘어제’라는 과거의 연대기적 속성에 있다기보다는 결과로서의 번역물을 대상으로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원전과의 관계 하에서 달리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번역물이 하나의 독자적인 텍스트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는지 등의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는 무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부류의 번역담론이 아무리 과거의 번역학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라드미랄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듯, 이런 대조언어학적 연구들이 번역교육의 현장에서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자신의 번역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비교와 대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제의 번역학으로 묶어둘 수만은 없는, ‘현재의’ 번역담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3.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은 구체적 경험이나 실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고유한 번역학적 인식을 구축하는 번역학으로 정의된다. 라드미랄의 설명에 따르면,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은 인지심리학을 토대로 하여 주로 ‘번역자의 두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가 연구의 주 대상이 되며 이것을 비디오나 오디오를 사용하여 녹음하여 물리적 연구물을 축적하게 된다(Ladmiral 2003: 156). 한 마디로 번역이나 통역자의 (번역이나 통역에 대한) 기존 관념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나 아니라 구체적, 물리적인 토대물로부터 어떤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때문에 귀납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번역행위의 결과로도 출되는 번역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는 기술 번역학과는 대조적으로,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은 번역행위의 과정, 특히 구어적 번역을 수행하는 통역자들의 언어심리적, 인지적 기능을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충분한 체계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는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 역시 ‘잠정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라드미랄은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을 ‘내일(demain)의 번역학’으로 규정한다(Ladmiral 2003: 156).

실험을 통해 입증되거나 반증되는 번역학적 지식을 만들어 내는 과학적 번역학은 종종 가장 진도유망하고 미래적 추동력을 가진 번역학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과연 번역학이 전적으로 과학적, 귀납적인 것만을 담는 것이 가능한가? 번역학 내부에 존재하는 실험 불가능한 영역, 귀납적 추론이 불가능한 영역을 부정하는 것이 옳은가?

귀납의 반대 개념은 본래 연역이지만, 적어도 번역학의 인식론적 맥락을 다

루는 차원에서는,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만이 공히 학문전개의 원리로 인정되는 연역(演繹)적 번역학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귀납적 번역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연역적 번역학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사변적’ 혹은 ‘추상적’ 성격의 번역학일 것이다. 그리고 사변적, 추상적 번역학은 구체적 경험이나 실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과는 달리, 경험보다는 직관, 실험보다는 개념에 더 의존한다는 점에서 처방적/규범적 번역학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번역의 본질은 열림, 대화, 혼혈, 탈중심이다”라고 주장한 베르만 등의 저자가 바로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겠다(윤성우, 이향 옮김 2009: 18). 이러한 답론은 엄밀히 말해 실험이나 귀납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과 상대적 개연성의 영역에 속하며, 한 마디로 입증도 어렵지만, 반증 또한 그 이상으로 여의치 않는 물음의 영역이다. 따라서 귀납이나 실험의 대상이 되는 물음들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내일의 번역학이 모든 번역학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4. 생산적 번역학

라드미랄이 제안한 생산적(productive) 번역학이란, 번역자가 번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하고도 상호모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번역학을 말한다. 번역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 상황, 즉 모순적인 요구들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의미를 정확히 옮기려다 문체나 관용어구가 가지는 가치가 소실될 경우 번역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혹은 원문이 가진 특정한 요소를 번역문에서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등등의 문제에 누구나 봉착하게 마련이다. 라드미랄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번역자의 상태를 정신분석학에서의 ‘장애’나 ‘콤플렉스’에 비유한다(Ladmiral 2003: 157). 장애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담자의 언어적 조력을 받아 언어적 무능력에서 벗어나듯, 번역자가 도착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용어들, 혹은 팁(tip)으로 구성된 ‘도구 상자’같은 것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화하고 축적하는 번역학이 바로 생산적 번역학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드미랄은 생산적 번역학을 ‘치유적 번역학’으로 규정하기를 망설이지 않는다(Ladmiral 2003: 157). 따라서 이때 ‘생산’은 번역

의 구체적 상황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의미한다. 다만 다양한 상황별로 필요한 개념적, 실용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는 번역학인 만큼 엄밀한 체계나 논리적 완성도를 갖춘 번역학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성경번역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들을 집대성한 나이다(Nida 1969)의 연구를 생산적 번역학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라드미랄은 자신의 주저 역시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라드미랄은 내일의 번역학, 즉 귀납적, 과학적 번역학이 성립될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생산적’ 번역학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Ladmiral 2003: 156).

라드미랄은 처방적/규범적, 기술적, 귀납적/과학적 등의 형용사를 통하여 존재 가능한 다양한 번역학의 형태를 정리한 후, 자신의 네 가지 유형의 번역학 중 마지막 단계에서 ‘생산적’이라는 형용을 구사한다. 그런데 처방적, 기술적, 귀납적 등의 형용사들이 그 자체로 번역담론의 성격과 그 속에서 문제되는 번역학적 인식의 산출 근거를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반면, ‘생산적 번역학’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명료한 부분이 있다.

생산적 번역학은 인식 획득의 방법이나, 그 획득된 지식의 확실성 차원에서는 과학적 번역학보다 덜 견고하되, 기술 번역학이나 규범적 번역학 보다는 훨씬 구체적 문제해결에 용이하며 실용적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 5. 결론을 대신하며

2002년 5월 파리통번역대학원(ESIT) 주최로 파리에서 ‘동일성, 타자성, 등가: 관계로서의 번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번역학에 대한 비교적 상이한 인식론적 전제를 가진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sup>9)</sup> 경험과학으로서의 번역학을 지향하는 체스터만과 성경번역 이론가인 나이다, 그리고 라드미랄 같은 학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학회에서 체스터만은 ‘번역적 관계’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서 번역학에서 이

9) 이 학회 참가자들의 발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은 1년 후인 2004년 『통번역과 등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소개 되었다. (참고: 이향, 김도훈, 편혜원 옮김, 2004, 한국문화사)

루어지는 모든 연구는 관계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모든 경험적 학문에서 그렇듯, “다양한 변수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번역학의 임무”라고 설명한다(이향, 편혜원, 김도훈 역 2004: 35) 뒤이어 체스터만은 번역학 내부에서 존재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을 분류 정리하고, 번역학 내부의 가설들을 해석적 가설, 기술적 가설, 설명적 가설, 예측적 가설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이향 외 역 2004: 44-49).

우리가 체스터만의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시 학회에 참석했던 라드미랄이 체스터만의 발표 이후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 속에 라드미랄이 지향하는 번역담론의 성격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드미랄의 논평을 인용해 보자.

문제는 번역학이 어떤 형태의 ‘과학성’을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Andrew Chesterman이 바라는 것처럼 번역학이 정밀과학이 가지는 과학성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 점을 후기-포퍼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했었고 Chesterman은 이를 수긍하였다 [...] 번역학이 그러한 과학성을 갖추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능력 밖의 일이다.[...] 번역학은 ‘현상학적인’ 담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 문제를 이야기하고, 번역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는지를 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들은 번역의 실무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지, 번역이론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번역학이며 나는 이를 생산적 번역학이라 부르고자 한다.(이향 외 역 2004: 150)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라드미랄은 체스터만의 번역학적 기획이 지나치게 ‘과학성’을 확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검증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을 과학의 기준으로 삼는 후기-포퍼적 방법론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체스터만의 발표 뒤에 이어진 논평에서도 되풀이해 설명하듯, 라드미랄은 자신의 번역학은 과학성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보다 소박한 ‘치유적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다(이향 외 역 2004: 51)

소위 ‘과학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면서 의미 있는 인식론적 장, 적어도 번역학 내에서 그런 장을 일구어 나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드미랄 자신

이 지향하는 생산적 번역학 역시 조만간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강력한 객관적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대상과 물리적 사실을 중심으로 인식론을 전개하다보면, 번역의 실무와 현장에서 번역을 경험하고 수행하는 주체인 번역자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러한 실증주의적 연구들이 번역자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으나, 그것은 번역자가 객관적이고 대상적인 물리적인 사실들을 산출하는 범위 내에서 뿐이다. 입증되지 못하거나 반증되지 못하는 번역자의 반성적 능력, 혹은 번역이 어쩔 수 없이 함축하는 언어 전반과 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윤리적 지향, 더 나아가 막연하지만 번역에 대해 갖는 자신의 과거나 현재 이해나 미래의 이해의 지평을 ‘과학적’ 방식으로 논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간파해내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라드미랄의 ‘생산적 번역학’의 논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적, 실증적 번역담론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反)과학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더 나아가 번역자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겪는 문제나 어려움, 심지어는 콤플렉스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생산적 번역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라드미랄 역시 이 점을 모르지 않는 듯하다. 네 가지 종류의 번역담론 유형을 제시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 자신이 성급하게 ‘처방적’이라고 분류했던 ‘사변적/철학적 번역학을 제5의 번역학으로 추가하면서 서둘러 글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Ladmiral 2003: 165).

이는 체스터만 식의 ‘과학적 객관성’의 불모가 되지 않고, 자신이 지향하는 ‘생산적’ 번역학을 개진시켜 나갈 여지가 현실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기에,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사변적/철학적’ 번역학에 기대를 걸어 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라드미랄이 자신이 제시한 생산적 번역학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 볼 일이다.

## 참고문헌

윤성우 (2009) 「조르쥬 무냉(Georges Mounin) 번역론의 몇 가지 철학적 전제들



- 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10(1): 103-120.
- 윤성우, 이향 옮김 (2006) 『번역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Ricoeur, Paul (2004)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 \_\_\_\_\_ (2009)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서울: 철학과 현실사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이승권 옮김 (2002)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Mounin, Georges (1963)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이향 (2011) 「번역학과 메타담론」, 『번역학연구』 12(1): 191-210.
- 이향, 편혜원, 김도훈 옮김 (2004) 『통번역과 등가』, 서울: 한국문화사. (Israel, Fortunato (ed) (2003) *Identité, Altérité, Equivalence? :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 - La traduction comme relation,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tenu à l'ESIT les 24, 25, et 26 mai 2000 en hommage à Marianne Lederer*, Paris: Lettres Modernes Minard.
- Balliu, Christian (2004) 'Jean-René Ladmiral: une certaine philosophie de la traduction', *Transversaliti'Ts: Revue de l'institut catholique de Paris* 92: 51-57.
- Benjamin, Walter (1921/1971). 'La tâche du traducteur'. In Walter Benjamin, *Oeuvres I. Mythe et violence*, Maurice de Gandillac (transl.). Paris: Denoel / Les lettres Nouvelles.
- Catford, John.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lmes, James. S. (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66-80.
- Ladmiral, Jean-René (1986) 'Sourciers et ciblistes', *Revue d'esthétique* 12: 33-42.
- \_\_\_\_\_ (1994, first published in 1979) *Traduire : théorèmes pour la*

- traduction*, Paris: Gallimard.
- \_\_\_\_\_ (1995) 'A partir de Goerges Mounin: esquisse archéologique', *TTR* 8(1): 35-64.
- \_\_\_\_\_ (2003) 'Epistemologie de la traduction' in Salah Mejri et al (Eds) *Traduire la langue traduire la culture*, Paris: Maisonneuve & Larose (pp. 147-165)
- \_\_\_\_\_ (2010a) 'Sur le discours méta-traductif de la traductologie', *Meta* 55(1): 4-14.
- \_\_\_\_\_ (2010b) 'La traduction, phénomène interculturel et psychorelationnel', *Meta* 55(4):626-641.
- Mounin, Georges (1976) *Linguistique et traduction*. Dessart et Mardaga
- \_\_\_\_\_ ([1955]1994) *Les Belles infidèl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 Pym, Anthony (2002) 'Translation Studies and Western Philosophy' (Online publications. <http://usuaris.tinet.cat/apym/on-line/translation/philosophy.pdf>)
- Berman, Antoine (transl.) (1999).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 et autre texte*. Paris: Editions du Seuil. (Schleiermacher, Friedrich (1813) *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 in *Friedrich Schleiermacher's sämtliche Werke. Dritte Abtheilung. Zur Philosophie. Zweiter Band* (Berlin, 1838), pp. 207-45).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London: Routledge.

[Abstract]

**Translation Studies by Jean-Ren LadmiraI:  
Toward an Epistemological Approach**

Yun, Seong Woo · Lee, H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looks into the need for discourses on Translation Studies and their significance from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In particular, we take a look at the epistemological approach of Jean-René LadmiraI, a French translation scholar and philosopher.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reviews a conceptual definition of ‘epistemology’ as it applies to Translation Studies, which is to articulate the nature of translation-related knowledge or perception. Epistemology herein refers to a comprehensive concept covering such issues as the types of knowledge pertaining to translation, as well as the methods or procedures for obtaining such knowledge, and their feasibility, legitimacy, and rationale.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looks into the epistemological approach of LadmiraI, who is presently one of the most active scholars in the field. In particular, we explore the meaning of four types of Translation Studies proposed by LadmiraI: prescriptive or normative, descriptive, inductive or scientific, and productive.

In conclusion, this section articulat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LadmiraI's epistemological approach. It explores his theory and its implications as an alternative to William Chesterman's approach, which mainly pursues scientificity in Translation Studies.

▶ Key Words: epistemology, philosophy of translation, productive TS, TS as empirical science, Ladmiraal.

윤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swyun2002@hanafos.com

관심분야: 해석학, 언어 및 번역철학, 번역인식론

이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leehyangmarina@gmail.com

관심분야: 번역물 품질평가, 번역학 연구방법론, 번역철학

논문투고일: 2011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5일